

# 경기아트센터, 道 무용단 헌정공연 선보여

‘예술즐찾’ 일환…지역맞춤형 공연  
민간인 통제구역서 공연 진행 주목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무용단의 헌정공연 ‘평화를 짓는 사람을 위한 - 춤으로 전하는 감사’를 장단면 평화촌 특설무대에서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유통사업 ‘예술즐겨찾기’의 일환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예술을 통해 공동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경기도무용단은 1993년 창단 이래 한국무용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 감수성을 반영한 창작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공연은 ‘MOVE, 네 가지 시선’이라는 테마로 남양주시 실학박물관, 장단면사무소 특설무대, 안산시 경기도미술관, 양주시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마다 고유의 예술생태계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로 공연했다.

두번째 공연 ‘평화를 짓는 사람을 위한-춤으로 전하는 감사’는 부채춤, 선비춤, 서도소리, 태평무, 판굿(농악) 등 다섯 가지 전통 요소를 융합해 한국의 자연과 정신, 공동체의 미학을 표현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예술을 통한 위로와 존중,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역 주민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풍류의 감성을 전달하며, 국가를 지키는 젊은 장병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무대로 기획됐다.

경기아트센터는 이번 공연 기획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헌정공연 가운데 태평무 모습. (사진=경기아트센터)

문화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헌정공연은 예술을 통해 감사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경기도 전역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예술이 상생하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

# 쥬, 패션매거진 통해 첫 해외화보 공개

가수 겸 배우…‘데이즈드’ 11월호에서 이색 스타일·표현 뽐내



▲데이즈드 11월호 화보. (사진=데이즈드&그림공작소)

렉스트림의 패션과 문화를 기반으로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는 매거진 ‘데이즈드(DAZED)’가 2025년 11월호를 통해 가수 겸 배우 쥬와 함께한 첫 해외 화보를 공개했다.

데뷔 후 처음으로 해외 화보를 촬영했다는 쥬는 이번 화보에서 그동안 다양한 음악 무대와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줬던 톡톡 튀는 인간 비타민다운 매력을 넘어 MZ세대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다양한 표정과 포즈로 새로운 패셔니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이번 화보에서 쥬는 세련된 기장의 차콜 미디 코트와 브라운 맥코트로 요즘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윈터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데 이어 니트 카라가 매력적인 숏 코트와 아가일 패턴의 니트, 코로듀이 강강 미니스커트로 새로운 MZ세대의 윈터룩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와펜 로고 경량패딩에 커브 패딩 부츠 미드레이스, 귀여운 플러시 미야옹 비니를 매치한 데 이어 프리미엄

와펜 로고의 크롭 커브패딩과 데님, 거기에 시그니처 언스트럭처 볼캡을 매치해 쥬만의 발랄하면서도 매력적인 윈터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촬영에서 다양한 윈터룩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소화한 것은 물론 촬영 내내 다양한 포즈 연출과 무드를 제안하면서 화보 장인으로서의 면모도 아낌없이 보여준 쥬는 올 겨울 최애 아이템으로 풍성한 퍼가 매력적인 벨티드 다운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 오사카 두 번째 방문으로 촬영 내내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현장을 이끈 쥬는 “늘 바쁘게 촬영만 하고 돌아갔던 것과는 달리 이번 화보 촬영에서는 오사카의 소박하면서도 힘찬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촬영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멋지고 행복한 순간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솔직하게 밝혔다.

한편 렉스트림(데이즈드 코리아)은 가장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을 통해 궁금증을 유발하는 페이지를 기획하는 창의적인 패션 매거진이다.

2008년 창간한 영국 라이선스 패션 & 컬처 매거진으로, 과감하고 독창적인 비주얼과 깊이 있는 기사를 통해 동시대의 패션, 문화, 예술을 조명하며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최재영 기자  
jychoi@gsdaily.co.kr

## ■화제의 책

# 시한부…고양이의…사랑을…

백은별 ‘시한부’

청소년 작가 백은별의 대표작 ‘시한부’는 우울과 방황의 경계에 선 사춘기 청소년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15살의 시선으로 대한민국 학교 현실 최전방에서 ‘자발적 시한부’를 택하는 학생들의 실태를 폭로하고 있다.

‘청소년 우울’, ‘청소년 자살’이란 키워드는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때려야 떨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어른들은 그저 철없는 투정, 지나가는 한날 감정으로 치부하지만 실제 청소년들이 느끼는 우울감은 더 깊고 무겁다.

백은별 작가는 같은 10대로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우울과 혼란, 죽음에 관한 고민을 ‘시한부’ 등장인물들의 서사에 반영해 구체화했다.

각각의 인물들에게 서사를 부여함으로써 ‘우울’, ‘자살’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준다. 트라우마에 자발적 시한부를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는 죽음을 생각하는 고통에 대해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미야베 미유키 ‘고양이의 참배’

예스24가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신작 ‘고양이의 참배’를 ‘예스24 오리지널’에서 독점 연재한다.

이번 작품은 뻔한 사술로 사람들을 속이는 데 천부적인 재주를 보인 귀안범사가 노름꾼이나 강패들과 어울리다가 만든 도적 무리 ‘송장당’의 이야기를 다룬다. SNS 상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다’며 모르는 사람들끼리 뭉쳐 나쁜 일을 저지르는 현실을 빗대 총칼을 들고 무참한 범죄를 저지르는 도적 떼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예스24 크레마클럽의 eBook 콘텐츠 연재 서비스 ‘예스24 오리지널’에서 10월 20일 첫 선을 보인 ‘고양이의 참배’는 11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독점 연



▲백은별 지음, 바른북스.



▲미야베 미유키 지음, 예스24.



▲TCC 지음, 좋은땅출판사.

재된다. 11월 17일부터는 크레마클럽 eBook 단행본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TCC ‘사랑을 세어보는 밤’

글쓰기 공동체 TCC가 사랑을 주제로 한 에세이를 모은 이번 책은 각기 다른 삶과 감정이 반짝이며 교차하는 작품집이다.

이 책은 사랑을 하나의 감정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바라본다. 저자들은 첫사랑의 서툰 떨림, 가족에 대한 애뜻함, 스스로를 위로

하는 마음까지 사랑의 여러 얼굴을 담담하게 기록한다. 완성된 해답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인 질문들로 이뤄져 있다. 책 속의 목소리들은 한결같이 따뜻하다. 상처를 통과한 사람의 용기, 이별을 받아들이는 이의 성장, 일상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 발견한 사랑의 흔적이 조용히 마음을 두드린다. 솔직한 문장들은 독자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을 떠올리게 한다. 〈교보문고〉